

판화가 이철수의 ‘우리 선생님, 장일순’

장 소 - 제천 이 철수 씨 작업실, 2004년 3월 27일(토)

참가자 - 황도근, 최혁진, 권오분

정 리 - 권오분

(봄기운이 시작되는 화창한 토요일 이철수 선생님 작업실에 찾아뵈었을 때 많은 일로 무척 바쁘셨고, 이런저런 담소 후에 대화를 시작했다.)

황도근- 장 일순 선생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해 주시죠.

이철수- 처음에?

내가 선생님하고 맞담배를 했는데……. 선생님하고 처음 뵈었을 때 나하고 30분 이상 볼 일이 있으면 담배 피운다고 얘기하고 피웠어요, 만나던 날부터 맞담배질하고 그랬지. 선생님하고 처음 뵈 게 언제인지 기억 못하겠어요. 아마도 81년쯤이었을 것 같은데, 첫 개인전 마치고 바로 갔던 것 같아요. 갔더니 선생님이 내 개인전 도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작품을 봤다고 그러시면서. 그 전에 선생님을 뵈 적이 없었고 도록도 부쳐 드린 적이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박경리 선생님한테서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박경리 선생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지하 형님이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몸 아픈 건 괜찮냐고 물어서. 제가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허리 아프다면?’(웃음) 별 얘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이 현주 목사님하고, 부론에 계시던 안 희선 목사님하고 동행을 했거든. 나한테 처음 하신 말씀은 ‘자네 재주가 내 재주보다 낫네!’ 그러시더니, ‘엎드려서 살어!’ 하셨는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기어!’ 그러셨다구.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하고, 죽산 조 봉암 선생님 말씀이셨어요. 자유당 시절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신 분인데, 그 분이 남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쓰고도 그 얘기를 당신 입으로 변명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디테일을 다 잊어 버렸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하고 다들 우셨어요. 그 이야기 언젠가 이 현주 목사님이 쓰신 글에도 있었던 것 같아. 그 날 그림을 하나 그 자리에서 쳐 주셨는데…….

그날 비싼 술 먹었어요. 시바스 리갈 인가? 그걸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담요 깔고 난을 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꽃은 크고, 잎사귀는 엄지손가락만큼도 안 되는 짧은 난을 쳐 주셨어요. 또 해주신 이야기가, 나와 남이 없는 관계라든지, 대상물과 나를 완전한 하나로 느끼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뵙게 됐어요. 이현주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면서 ‘너 보면 좋아하실 선생님 계신다.’ 고 하면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로 선생님 그늘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황- 그 시절이 굉장히 격동기 아닌가요?

이- 81년에 제가 첫 개인전을 했는데 ,그 때도 종로경찰서에서 잡아 간다고 바깥에 와 있고 그랬어요. 우리도 잡혀 갈 생각하고, 봄눈이 가시기 전이어서 내의를 든든히 껴입고 있고 그랬지. 언제라도 잡혀갈 생각하고. 용하게 안 잡아 갔는데, 들리는 얘기가 ‘뭐 또 스타 만들 일 있냐? 그냥 두는 게 득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대요.

전시 끝나고 나니까 가택수사 한다고 들이 닥쳤더라고. 아무튼 탄압정국이 계속 될 때였어요. 장 선생님 댁에 드나드는 것도 전부 체크가 되고 그럴 때 아니었을까 싶어. 우리는 그냥 선생님 뵙는 것만으로도 황감한 일이니까 아무 생각도 안하고 갔지그날 난 참 좋았어요. ‘좋은 선생님을 이제 뵙게 되었구나.’ 싶었지. 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뵙기도 하고 선생님이 몇 차례 여기 오시기도 했어요.

황-몇 년도에 이곳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내가 제천 내려온 것은 86년도? 86년에 이 집을 사서 87년에 왔는가보다.

그 무렵에 시골집을 찾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당신이 초당을 지으려던 자리가 있다면서 데리고 가신 데가 귀래였어요. 멧돼지를 키우는 분이 계셨는데, 선생님이 초당하실 자리까지 가서서 여기다 집짓고 살라고 그러시더라구요나는 오래 살 거니까, 땅을 사서 짓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끝끝내 땅을 안 팔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오게 됐어요. 하마터면 원주사람이 될 뻔 했는데…….

그래 여기 오고 나서 선생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한 번은 김지하 선생 아버님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는데, 지하 형님네 아버님도 참 좋으셨어요. 그 어른이 뒤에 혼자 오시면서 당신이 쓰던 전기톱을 들고 오셨어요. 내게 필요할 거라고. 살아오신 얘기도 재미있게 하고 그러셨는데……. 어른이 근엄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소탈한 모습이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지하 형이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걸 했지.(다 웃음)

그 이후로 정말 자주 찾아뵈었는데, 선생님이 원주 선배들 몇 분과 저녁을 하시는 자리에서 ‘철수 건너오면 밥은 먹여 보내, 돈 주고 밥 먹게 하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바람에 그 이후로 원주 가서 한 번도 돈 내고 밥 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그 무렵에는 제가 거기 드나드는 사람 중에 가장 연배가 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들 같아서거나 가난한 화가가 불쌍해서 그러셨거나 어쨌든 원주에서 대접을 받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도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같이 봉산동에서 다리 건너 밥집까지 건너오면, 대개 낮에 가도 술 한 잔, 저녁에 가도 술 한 잔 이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하고 인사를 많이 하

시는 것을 보고, ‘지역 사회에서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제가 지금 제천에 사는데 시민운동 하다가 나이 더 들면 장 선생님처럼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고 가벼운 여행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현주 목사님도 이야기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해서 한 번은 권정생 선생 택셀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이 현주 목사님이나 제가 권 정생 선생한테도 말씀드리고 미리 장 선생님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좋은 어른이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두 분이 권 정생 선생 오두막 앞에서 첫 대면을 하시게 됐는데, 장 선생님 특유의 활달하고 제스처가 큰 방식으로 포옹을 하셨어요. 문 목사님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포옹하듯이. 그런데 권 정생 선생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줍은 태도로 가만히 서 계신거야. 장 선생님이 안아주신 격이 된 거지. 낮가림이 심하신 분이기도 했겠지만, ‘아 뛰어난 영혼들끼리도 쉽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했어요. 그 날 찍은 사진이 어디 있던 것 같은데…….



내가 전 우익 선생님하고도 가깝게 지냈는데 한번은 전 우익 선생 안부를 물으시더라구. 이 러저러하게 잘 지내신다고 그랬더니 부채를 하나 꺼내서 난을 하나 치시고는 “전 우익 선생 뵈면 니가 전해라.” 하셨어요. 그 무렵에 전 선생님이 한두 번 장 선생님을 찾아 가셨을 거 예요. 그래 다음에 전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전해 드렸어요. 그런데 안 가지시겠다고 하셔. 난도 참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뒀어. 전 선생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 언제 다시 들고 가서 돌아가신 장 선생님의 유품으로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 어요. 저는 장 선생님을 뵈는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고, 선생님한테서 과분한 사랑도 받고,

그래서겠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선생님의 흠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 있어도 내 눈엔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참 좋았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물론 또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장 선생님한테 만큼 편안하게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황- 80년대 장 선생님과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나누셨는지요?

이- 80년대에는 가서 다른 선생님들을 함께 뵈는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는 임 재경 선생님과 몇 분이 와 계셨는데, 한겨레신문 창간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생님께 뭔가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거절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또, 리영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계셔서 곁에 앉아 듣기도 하고, 8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세계가 경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격동하는 정치의 표피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일에 이것저것 그림을 보태고 살던 시절이었어요,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주제넘게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조용히 들었는데, 나중에 올림픽 치르고 나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이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로 변화해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술하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일찍 좀 눈치 채고 뭔가 대응을 해 줘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89년에 독일 스위스 순회전을 하고 와서 1년 반 동안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했거든요. 그 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좀 더 깊이 발을 내디디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느꼈어요. 특히 사회적 변화를 열망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으니까 거리에서 시위하는데 내 그림을 많이 보태기는 했지만, 그림을 통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시대 변화의 표면만 살피는 거 말고 보다 깊은 심층에서 자본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의 대안으로서나 혹은 안티로서의 문화예술 이런 것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또 어떤 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그 때는 텃밭농사만 하면서 지냈는데, 선생님을 자주 뵈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자네를 시골 내려와서 살라고 하신 것이 해답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쉬면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잘했다 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하게 됐다. 그런 말씀드리면 늘 ‘기어!’, 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당신께 어울리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겠지만, 아직 젊은 이철수는 ‘선생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산다. 맘 가는대로 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는 하던 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런 저런 일하고 있다거나 어떤 일이 힘들다거나 하면, ‘잘했어,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적절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처럼 해 볼 때가 많았어요. 선생님은 굉장히 너그러웠어요. 저도 흉내 내고 싶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비슷하고 닮은꼴인 사람들 속에 있어야 편한데, 선생님한테는 가보면 고위 장성에서부터 고위관리까지 아주 다채로운 사람들이 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도 자기 정체성이 유지될까’하는 철딱서니 없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런 사람들과 무슨 얘기 하세요?’ 하면 선생님이 ‘왜? 못 올 사람이 왔어?’하셨어요. “저런 사람들 선생님께서 뭐 들을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이 다 자기 자리에서 묵어 있는 것 아닌가?, 뭐냐면 말야, 내가 이야기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이 조금만 달리 생각해서 일하면 말이지 달라질 것이 있지 않는가? 그냥 나 편하자고 내치기보다는, 덕담이라도 좋고, 자네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시라고 한 마디 해 놓으면 말이지..... 내가 그걸 마다할 일이 아니지.’

돌아오면서 저런 것들 때문에 세상 안 된다고 혼자서 생각하지, 한편으로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열어도 좋을 텐데 하는 부러움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투로 생각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가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밭살맞게 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은 원래 그러는 게야’ 하고 얘기를 끊어요. 조바심하고 있다가 그 얘기 한마디 들으면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거. 뭐 몰랐던 얘기도 아니지만 선생님 입에서 그런 말 한마디 나오면 가슴속에 있던 게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드니까 많이 갔어요. 어떤 때는 우리 식구랑도 갔어요. 우리 식구를 선생님이나 사모님 아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한 후로는 같이 잘 다녔는데, 가면 사모님이 동태찌게에 호박전 같은 거 부치시고 쪼그만한 상에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 사모님이 늘 그러셨어요.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는 손님 많지 않아요.’

큰 자식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마웠는데, 돌려 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성 근처의 어느 산골에 살 때였는데, 두 번째 개인전에 동학 시리즈를 준비 했거든요. <동학격문(東學檄文)>도 쓰고 <창의문(倡義文)>도 쓰고 <파랑새요(謠)>도 구성상 필요해서 쓰다 보니 내 솜씨로는 글씨의 격조가 생기지를 않아.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을 뵈게 되었길래,

‘내가 이걸 할 건데 글씨가 도저히 자신도 없고 문제다.’ 그랬더니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뭐여?’ 그러시더라고요.

‘글씨 좀 써주시라!’ 했는데, 두말도 더 안하고 써 주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싹 정리해 보내 드렸더니, 글씨를 화선지에 써서 서류 봉투에 넣어서 시골 주소로 보내셨더라고요.

……忠諫之士를 效忠이라 이르고 匹夫此人을 匪徒라 하여……人民의 마음은 날로 變하여 들어서는 弊生의 業이 없고 나가서는 保身의 策이 없다, 虐政이 날로 자라고 怨聲이 갈지라 아니하여……許多한 貨物은 國庫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個人의 私藏을 채우고 만 것이며 國家에는 積累의 積가 있어도 淸潔하기를 志願지 아니하고 驕慢하고 奢侈하고 淫亂하고 더러운 일단을 剝奪없이 行하여 八路가 蕪穢이 되고 飢民이 盈溢이 풀었다, 守宰의 貪虐이 宗姓이 어찌 困窮치 아니하라 宗姓은 國家의 根本이라 根本이 衰微하면 國家는 반듯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역이 同心하고 僑民이 詢議하여 이에 義旗를 들어 輔國 守民으로 死生의 隨從을 하노니……

甲午·德義文에서

대저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형편으로 말한다면 짐전 대신들은 모두 가 賊인데 밤낮으로 하는 일이란 오직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일이고 자기의 黨과 자기의 派만을 각 읍에 布列하여 백성 허치는 것만을 일삼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찌 이를 견딜 수 있단 말인가?……

榜文에서

無他라 일본과 조선이 開國이후로 비록 隣邦
이후 亂代 亂國이더니.....비록 勝敗는 업스
인명이 피초의 상흔이 었지 불상치 아니 할리
요 기실은 조선기리 相戰하자 후손비 아니여늘
如是 骨肉相戰하시 었지 위답지 아니리오.

.....일변 심각컨디 조선 사람 기리야도 道은
타르스 道義와 道義는 其義가 일반이라.....

...갓치 禱와 禱화 應야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안이케 應고 동심합력 應야 時를 이루게 應
을시라

甲午 '告示'에서

새아 새아 綠豆새아

綠豆밭에 앉지아라

綠豆꽃이 떨어지면

淸淨 장사를고간다

과랑새謡一

선생님이 우리 의성 살 때도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보니 선생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을 많이 써 주셨어요. 그 깊은 산골에 큰 모자 하나 쓰고 오셔 가지고 안채에 계시던
김 영원 장로님과 말씀 나누고, 김영원 장로님은 유기농업의 태두 중에 한 분으로 꼽히시는
분이시거든요. 연배가 장 선생님하고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며
유기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즐거워하면서 하셨어요. 그 글씨가 아까워서 복사를 해서
새겨 전시하는데 쓰고, 원본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한글로 된 선생님 글씨를 찾는 사람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해요.

한 번은 내가 신경림 선생님 책 표지했던 조그마한 산 그림 하나 그려 가지고 부채에다 붙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아! 이거 호랑이 등짝 같구먼!’ 하시더라고, ‘여기다 내가 글씨 하나 써 볼까?’ 하시더니. 그러시라고 하니까 산이 호랑이 등 같다고 쓰고 하늘에 눈이 있다고도 쓰시고, 낙관을 하셨어요. 방구 부채 큰 거였는데 두 개를 써서 하나를 질 주셨어요. ‘이건 자네가 하고 하나는 날 주게.’ 아마 하나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황- 초창기 판화 그림은 굉장히 강하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적 비판을 표출하려고 하는 의식을 선도하는 입장이었다가 그림이 부드럽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장일순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지요.

이- 나는 그 얘기를, ‘사람이 잘 살려면 줄 잘 서야한다!’ 그렇게 얘기 하거든. 그게 뭐냐면 이현주 목사님 옆에 줄 선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요. (웃음). 현주 형님이 ‘틀림없이 선생님이 너 좋아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선생님이 저 좋아해 주셔서 가까이 지냈어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스승과 제자>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현주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싶

다고 추천했어요. 방송국에서는 이철수 선생 같으면 스님을 추천할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냐고 그래. 그분이 중보다 훨씬 더 중 같기도 하고, 나는 이현주 목사님이 안하시겠다면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건 니 프로니까…….’ 그러시더라구. 그때 말씀이 장 선생님도 계시고 전우익 선생님도 계시고 한테 하필 나냐?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현주 목사님을 했냐하면, 군대 제대하고 화가가 되려고 생각했던 시절에 이현주 목사님을 만나서, 그게 78년인가? 그게 내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나이로 보면 선생님이로 할 나이가 아니었지 10년 차이니까. 어쨌든 내 인생을 정말 크게 바꾸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양반을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거든. 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도 그 양반이고, 권정생 선생, 전우익 선생도 권정생 선생 댁에 갔다가 뵙고, 리영희 선생님도. 내가 기억력이 희미해서 잘 모르겠는데, <창비>에 드나들면서 알았는지 장 선생님 댁에서 처음 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저런 많은 어른들을 뵈게 되면서 하나같이 우리보다 연배도 위고, 생각이나 삶이 유연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강파론 사람들은 여러 기회에 부딪혔다가 툭 튀겨 나오고 튀겨 나오고 하는 식으로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하는 속에서 예술적 변화도 생기고…….



황- 자연스럽게 생기신 거군요?

이- 예. 예술적 변화보다 마음의 변화가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거칠고 싸움닭 같았

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게 되더라구요. 이 현주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닮았다고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았거든요. 장 선생님 닮았다는 소리는 나이 들었을 때 듣고 싶은 얘기가야. (웃음)

황- 그림의 변화가, 어르신도 사람으로 의인화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서, 어차피 교감이 많으셨으니까…….

이- 장 선생님을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 내 눈에는 그런 저런 것이 안 보이니까. 나는 선생님을 평가할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할 수 있었던 어른”이라는 게 내 평가예요. 아무런 계산도 없이 편안하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구. 그것 이상은 표현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다른 평가까지 개입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참 좋았던 어른이고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무위당 선생을 기리는 모임> 할 때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 보자” 그런 생각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정도 반추해보면서 나도 정리해 보려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함의가 많은 말씀을 늘 하셨어요, 잘게 또렷이 말씀하시기 보다는 크게 짚어주는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얘기 한마디 듣고 오랫동안 곰씹을 수 있는 말들이 많았지요. 나는 미주알고주알 좋았던 일, 기분 나빴던 일들을 자랑도 하고 하소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 일은 그런 게야” 하시거나 “잘 했어!”, “그럴 거 뭐 있는가?”, “해 봐!”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긴 시간 고민했던 것이 선생님 앞에 가면 한 마디로 뭉뚱그려 저서 돌아와 인생이 단순해지는 느낌인데,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큰 눈으로 보고, 단순하게 보고하는 것이 뭔지 조금씩 깨닫게 돼요. 선생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날보고 양명학 공부해 보라고 하셨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화두처럼 던져 주시기도 하고, 전시하면 꼭 올라와서 같이 봐 주시고, 그림에 관해서도 애들처럼 재미있어 하시면서 보셨어요, 맞아! 하시면서. 내가 해 놓은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 깊이 들어와서 즐거워하시고, ‘나는 말일세, 붓 가지고 장난을 해도 저런 경쾌함은 안 되더군.’ 이렇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시기도 하고. 어른하고 아이하고 그런 대화 속에 이미 변별점이 뚜렷이 있는 것이겠지만 참 고맙지요. 그림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즐거워하고 친진난만하게 그림하고 노는 듯이 하시고, 칭찬 한마디 하시고, 밥 한 그릇 사주시면 행복해지는 거.

황- 혹시 엄한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뭔가 남은 틀리고 자기가 옳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단호하게 꾸중을 하시는데.

이- 한 번도 그런 야단은 안 맞았어요. 나는 현주 형님이랑 같이 간 것을 빼고는 우리 식구

와 둘이 갔어요. 선생님께 야단 안 맞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밖에서 일하면, 선생님 인간관계 하시는 거 유심히 보고, 또 말씀 하시는 것 보면서. 내가 80년대 말에 고민 많이 하고 돌아 나오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 때 결론은 운동도 욕심을 동력으로 삼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 뒤로 내가 운동 할 적에 인간적인 관계나 인간 됨됨이에 대한 관심으로 운동 기조를 바꾸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 그 무렵부터는 나는 옹고 하는 류의 운동을 내가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도 많이 편안해졌고 세상 일을 부감해서 보거나 멀리서 보거나 하는 일이 뭔지를 눈치를 챌 수 있게 된 게, 개인적으로 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기라고 이야기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 온 것이 선생님이 바라신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느꼈어요. ‘기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지하 형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셔서…….

현주 형님 같은 분한테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하셨으니까, 알아서 길사람은 놔두고, 알아서 못 기계 생긴 놈들한테는 그랬나보다 생각이 드는데, 지하 형이 들으면 ‘너하고 나하고 같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닳은 구석이 있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도 많아요.

황- 원주의 젊은 세대들에게 생명이나 환경, 지역공동체등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어르신이 자꾸 화두의 중심에 오르고, 자꾸 포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예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조금 나갔다 보니까 어르신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젊은 세대의 에너지는 자꾸 일을 벌려놓으려고 하고 있고…….

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 선생님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하지 말자하는 것도. 장 선생님의 생각을 가능하면 많이 내면화하고 살겠다 생각하고 찾아뵈었는데, 장 선생님 사상이나 철학을 언어 속에 억지로 개념정리하고 밀어 넣으려는 생각에는 반대예요. 그럴 때도 되지 않았고.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장 선생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보내보자예요. 가령 장 선생님이 이철수를 통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이현주를 통해 할 수 있는 얘기가 뭔지도 보자. 기다려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장 선생님이 우리 안에 던져준 씨앗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통해서 장 선생님이 다시 조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게도 장 선생님 돌아가신 게 서운해서 그린 그림 한두 점 있어요. 바다에 큰 우산 하나 펼쳐있는 거. ‘일속자 선생이 창해일속이 되셨다’고 화제를 넣어보기도 했는데, 결국 흘러가는 이야기일 뿐이고 나는 지금도 장 선생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소중하게 키워보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하는 일 가지고도 내가 설명을 못하겠는데……. 밥 나눠먹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선생님을 자주 뵈었다고 한 들 내가 장 선생님을 그럴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했던 그것이 내게는 장 선생님이지, 누가 설명해주는 장 선생님에 나는 관심 없고……. 내가 봤던 것 하고 다를 바도 없었겠지만 다르다고 한 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생명이야기 하니까 선생님이 생명원조집 이다 이런 식인데, 국밥집이나 원조 이야기 하는 것이지. 주변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나한테는 이미 원조니까. 나는 내 국밥 장사하면서 살고 선생님의 그 국밥은 이제 돌아가신 국밥이잖아요. 그 국밥의 추억이나 국밥에 관한 기억이 남아있는 건데, 내가 새롭게 국밥 끓일 때는 소금 얼마 소머리고기 얼마

계산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상상할 수 없이 맛있었던 선생님 국밥에 관한 이야기로 추억하면 될 일 같아요. 선생님을 좀 자연스럽게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황- 사실 현재 생명운동관련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장 선생님을 못 봤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 안에 녹아나는 추억이 있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 그걸 안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글썄요……. 이거 정말 주제넘은 소리라서, 어른들 앞에서는 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지만, 예수 이야기가 제자들에 의해 뒤늦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이 다르고 누가 복음이 달라졌듯이 난 그 다른 이야기가 언젠가 정리될 때가 있을 테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해요. 젊은 동력을 막 이끌어가겠다 이런 식의 욕심은 선생님 생각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두고 보자가 선생님과 어울리는 방식이고, 선생님을 못 본 사람은 이철수가 지 감정 섞어 과장해서 말하는 거, 그걸 들어도 괜찮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지역의 많은 선배들이나 장삼이사들이 하는 이야기 일수도 있지요.

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사람들이 알만한 저명인사들한테 자꾸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야. 저한테도 발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자리는 피하고 싶더라구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걸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어떤 의미로는 숨어질 것 다 숨어지고, 지워질 것 다 지워지고 난 뒤에도 괜찮을 것 같고, 언젠가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선생님 이야기를 왜 안하겠어요? 하시겠지. 그런데 저렇게 자리 만들어주면 모양 갖춰서 이야기하고 험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걸러지고, 이해될 게 다 이해되고 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려도 될 선생님의 입장이나 태도가 보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우리 기준으로 빨리 갖춰서 뭘 해 놓자, 조금 있으면 선생님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는 이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황- 조바심이 맞긴 맞지요. 원주만 해도 지역에 큰형님들이 60이 다 넘으셨으니까요, 그 동안 어르신이 남겨놨던 밝음이든 한살림이든 세대가 바뀌니까, 일하는 세대가 바뀌고 큰 형님들이 물러나시게 되니까 조바심이 나죠.

이- 예수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쉬운 거 있어요? 지워진 부분이 많아서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나는 아무리 얘기 잘 해도 온전하게 전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데 선생님이 그냥 어깨를 툭 쳐주셨을 때 그것만으로도 얻은 게 많았던 거 아니예요? 선생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자랑을 하면서 살게 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아쉬워하게 하고 그 대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방식을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뭐 급할 때, 힘들 때 쫓아가서 뚫어준 사람들……. 방에 보일러 새면 밤낮없이 뛰어가서 고쳐드리고 한 사람들……. 그게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 손님으로 드나들던 존재들 이었어요. 선생님이 원주 바깥으로 출입을 거의 안 하면서 원주 사람으로 살아가신 게, 정치적인 상황이 강제한 구석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걸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관심거리가 되는 것도 선생님이 살아가신 거 통째로 소중하다고 느껴서 그런 것이지. 전국적인 인물이 되게 하겠다는 생각은 선생님 생각과는 다를 거라.

선생님은 심심파적이지 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난도 치고 대나무도 치시면서 사시고 …… . 그래도 나눠주시는 글도 사람 따라 달랐지요. 문화적 행위라면 그것이 유일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후배들이나 우리같이 가끔 찾아오는 젊은 사람 국밥 한 그릇 사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걸 통해 우리에게 이만한 감화를 남기셨으면 그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자꾸 뭘 살을 더 붙여서 그 양반이 중앙 무대에 있어야 하는 분인데 원주에 있어 아쉽다니. 그건 아니지. 원주에 있어서 좋았던 것이지 장관하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웃음)나 개인으로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냥 거기 계셨으니까.

‘너 양탕 먹을래?’ 하시면서 앞서서 털렁털렁 걸어가시다가 군고구마 장사하고 인사하시는 것도 봤고, ‘내 글씨의 모범’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들었고…….그 얘기는 많은 분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데 늘 그 길로 다니셨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살살이 뒤지기보다는,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 선생님 만큼 잘 살려고 애쓰는데서 선생님이 평가되고, 이해되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장 선생님은 우리가 잘 사는 데 달려있으니까 함부로 안 살고 싶다고 느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벼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라면선생님 기리는 모임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키우려고 하면 말리고 싶어요, 그냥 두고 싶어요. 옛날에 예수 기리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더 잘 됐을까?

황- 원주 분들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이- 그것도 참 좋았어요, 천석이든 어디든 가면 공밥 얻어먹고……. 한번은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 돈 낼 기회가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식구하고 일부러 천석에 가서 배가 안 고프데도 보쌈을 정식으로 시켰어요. 절반도 못 먹고 싸달라고 해서 들고 나오는데 계산하려니 못하게 하시더라고. ‘자네 집에 가도 나 밥을 줄 텐데, 그럴 거 아니냐?’고……. ‘나는 집에서 자

네를 따로 맞을 수 없으니 여기 오셨을 때 밥 한 그릇 쥐야지. 그냥 가라'고. 정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그늘에서 만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타산 없이 참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 속에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분들인데, 그 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게 다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된 것 만으로도 한 문하에서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지요.

선생님의 생명사상이 우리같이 내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발현되고 구현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 감화를 받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문혀있는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싹을 틔우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원주의 장 선생님 기리는 모임에서도 우리는 손님으로 역할이나 계속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원주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꾸려 가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요.

장 선생님 사모님이나 자제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는 게 어찌면 선생님 더 바라는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식구도 그러거든요. '당신 죽으면 나 보러 오는 사람 없을 거라고 사모님 지금 여러 가지로 적적하고 외로우시겠다고.' 그러면서 통화하면 한 시간씩 하죠.

나는 우리 식구가 장 선생님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생활이나 삶을 통해 이해하는 부분이 더 실감도 있고요, 힘도 있고.

우리 식구 앞으로도 그림을 그려서 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유곡천향"이라고 쓰셨던 것 같애. 깊은 골짜기의 하늘 향기라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건달 같은 녀석 옆에서 그래도 니가 살아줘서 살지' 그런 생각이 드셨겠지. 사모님 보고도 그런 생각하시면서 사시지 않으셨겠어요? 사모님께 여러 번 여쭙았는데 바깥에서처럼 근엄한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애.

황- 준길 형님이 가장 잘 아시지요. 말씀을 어른신하고만 한게 아니고 집안 자체를 다 살피셨으니까요.

이-기리는 모임 같은 건 준길 형님 같은 분이 이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럴 기회가 있겠지. 난 원주 사람이 정말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준길 형님 같은 분이 편안하게 앉으실만한 자리로 만드는 거필요하지. 세미나를 할 때도. 소박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자리도 만들어야지. 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 거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멋있게 얘기한다니까, 우리한테 얘기 하라하면 내 알리바이를 위해 선생님을 쓰게 되요. 그건 피해질 방법이 없어. 이현주 목사님도 언젠가 기리는 모임보다는 선생님 글씨하고 그림이나 묶으면 어떨까 하시길래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안도한 적이 있는데, 나한테 장 선생님을 알게 해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장 선생님을 통해서 참 많이 깊이 배운 분이라는 느낌

이 있어요. 언젠가 노자 이야기를 하실 때 현주 형님이 너도 같이 풀어볼래 하시더라구. 3자 대면 형태로. 내가 그럴 능력도 안되고, 주제가 아닐 것 같다고 빠지고. 한두 번 녹음기 들고 대답하시는 자리에 앉아있어 본 적은 있는데…….



장선생님 굉장히 열려 계신 분이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족들하고 만나면서 ‘내가 그 집의 큰 아들 뺄 밖에 안 됐던 건데…’ 하는 생각을 새삼스레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자식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동시대인이라는 느낌이거나, 같은 고민을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선생님 앞에서 담배 피울 수 있었거든. 그래서 가끔 가부좌하고 앉아 담배 뿜뿜 피우며 한 눈 팔고 있으면 선생님 앞에 다른 선배들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고, ‘웃긴다!’ 그런 생각 혼자 하고 나오곤 했거든. 원하면 그렇게 열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나는 맞담배질 한 덕분에 얻은 게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 소리나 했으니까. 심지어 선생님께 저 틀렸다고도 막하고 그랬는데…….(웃음) 언짢아하시는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황- 점점 일이 많으시지요?

이- 요즘 탄핵국면이라 홈페이지도 촛불국면용으로 바꾸어 놔는데 선생님이 지금 보셨으면 ‘기어!’ 하셨을 거라. ‘아직 멀었어. 이 사람아. 세상이 그렇게 쉬운가?’ 그 쯤 이야기하셨을 것도 같고.

그냥 좋았으니까 돌아가신지 10년 됐어도 아직 살아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야기 하셨던 생명사상의 뿌리를 잘 살펴보고, 실패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냥 세상에서 내 몫이 얼마큼인지 생각하게 되요. 작은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못하겠고, 바깥 일은 정리하고 있어요. 다 정리하고 정말 훌가분하게 내가 생각한 눈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조금 편안해지려고 하고, 우선 마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지금은 촛불 시위하는데 바람 잡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하고, 작은 모임 실속 있게 꾸러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오게 만들고, 같은 생각 하게 만들고 하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만 장 선생님과 과의 관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생각하면 과하게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지치니까.

평생 부지런히 땀 각오면 모를까, 평생 안 될 일이면 조금 걸음을 늦추는 것이 방법일 수 있지요.

황교수 하신다는 강좌처럼, 조금 작아도 100회든 200회든 꾸준히 하자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하나씩 찾고, 인간적인 감화들이 서로 있어서 그게 네트워크가 되게 만들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네트워크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깊이 고민하고 망가져가는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덜 망가질 방법을 고민을 해 보자구요. 그 언저리에서 살 길이 있겠지요.

출처: 『무위당을 기리는 사람들』